



데 左手는 破損된 것
을 洞民들이 「세멘
트」로 後補하여 現
在는 臍前에 五指를
퍼서 內掌하였기 때
문에 本然의 印相은
識別하기가 困難하
다. 兩쪽 발은 左右
무릎위에 露出되어
있는 바 足指가 完全

하다. 實測值는 現高(頭部缺) 六九cm 肩幅 四九cm 胸幅 三六cm 膝幅 七
九cm이다. 비록 頭部를 缺하여 全體의 優雅한 尊容과 相好를 알 수
없으나 右肩으로부터 右腕 手印에 이르기까지의 溫柔한 彫刻手法과 各
部가 流麗하며 堂堂한 樣式으로 보아 年代는 羅末麗初로 推定되었다.
現在 佛像은 本來의 座臺를 缺하고 他石材를 利用하여 그 위에 奉安되었
는바 塔材로 보이는 平面一石을 下臺로 하고 그 위에 竿石으로서 塔身一
石을 놓았으며 또 一枚의 平面石으로 座臺를 삼았는데 上·下石은 破損
이 甚하고 아무런 彫飾이 없다. 中間竿石으로 놓여진 一石은 곧 方形塔
身으로 推定되는 바로 高 四九cm 幅 五一·五cm이며 各面에 幅 九·五cm의
兩隅柱가 刻出되었다. 여기서 特히 注目된 바는 그 一面의 兩隅柱間地
(幅 三三cm)에 있는 彫刻이다. 卽 蓮花座위에 坐像을 陽刻하였으나 磨損
으로 尊名은 分揀하기 어려운데 圓形의 頭·身光이 있으며 二條線으로
身光을, 一條線으로 頭光을 表現하고 있는 樣式은 매우 重要視되며 그 彫
刻手法으로 보아 石佛과 同代의 佳作으로 推定된다. 아울러 이곳에 또
있을 塔材와 寺址의 再調査를 期待하는 바이다. 이 調査는 一九六二年
十二月下旬 同人 몇 분과 함께 全北踏查時에 이루어졌는데 當時 特히 現
地案内에 諸般便宜와 助言을 주신 全州地方法院의 黃冕周氏께 感謝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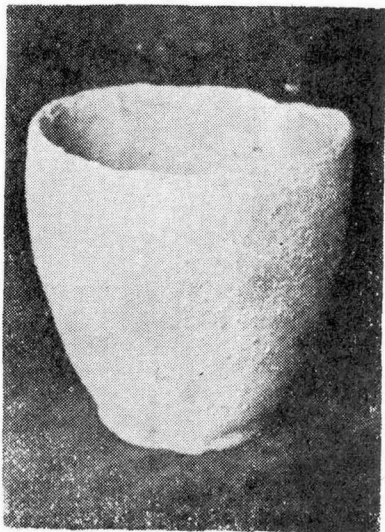
迎日郡 杞溪面出土 無文土器

金正基

慶北 月城郡 安康邑으로부터 迎日郡 杞溪面의 거의 中心部를 西北方
으로 溯及하는 兄山江支流를 境界로 하여 北은 標高 七六二m인 飛鶴山
의 南麓과 南은 標高 八〇七m의 雲住山의 北 및 東麓一帶에 南方式支石
墓가 數十基 群在한다는 것은 이미 洪思俊氏에 依하여 新聞紙上에 發表
된 바 있었다.

今般 國立博物館에 依하여 이 支石墓群에 對한 發掘調査가 實施되었
을 때 偶然히 完形의 無文土器 한 개를 入手하였다. 이 土器가 支石墓를
築造한 時代의 것으로 생각되며 出土地가 確實하고 그 附近의 支石墓와
의 關係 位置가 뚜렷하기 때문에 여기에 紹介하려 하는 것이다.

出土地는 杞溪面 柵丹洞 八二七의 一番地이며 現在는 水田으로 되어 있다.
이 곳은 安康邑에서 兄山江支流를 건너 杞溪面으로 가는 버스道路 北邊
이며 柵丹洞部落 北쪽에 있는 三基의 支石墓에서 約四〇〇m 南쪽의 좁
窄은 地帶로서 道路를 건너 南쪽 約二五〇m에는 河川이 있다. 出土狀
態는 當時 發掘者인 崔俊植氏(그 水田의 主人이며 柵丹洞部落에 居住함)
의 말에 依하면 水田의 一部分이 畚 높았기 때문에 耕作에 不利하기에
整地하려고 높은 部分의 흙을 除去하였을 때 地表下 約二〇cm에서 많은 赤
褐色土器의 破片이 若干의 木炭片과 함께 出土되었고 그 部分의 바닥흙
은 直徑 約五〇cm의 範圍에 黑褐色의 단단한 燒土面이 있었고 이러한 곳
이 다시 五·六m 떨어진 곳에서도 發見되었으며 이 土器는 그 중 한 곳
에서 出土된 것이라 하고 現地는 지금은 完全히 平坦하게 整地되었으나
燒土部分은 아직 그 痕跡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筆者는
이 곳이 아마도 支石墓를 營爲한 部族들의 住居址의 一部라고 생각하여
直接 그 現場을 調査하려 하였으나 崔氏의 支障으로 同行이 不能하여 대



장의 位置만 듣고 그 附近을 調査하였으나 土器片 二、三點을 表面採集한 以外에 別 收獲은 없었다.

土器는 平底인 深鉢形으로 口徑一四·七cm 底徑八·二cm 高一五cm의 赤褐色

이며 器體의 一部는 製作後에 불을 입었는지 黑灰色을 띤 곳이 있다. 胎土속에는 長石系의 細砂가 比較的 많이 섞였으며 土器의 表面은 磨滅이 甚하여 細砂가 뚜렷히 들어나 있다. 器 內壁은 煤煙을 甚하게 입은 탓인지 大部分이 黑色으로 변하였고 磨滅은 거의 불 수 없다. 器底는 所謂 平底라는 樣式으로 平凡한 平面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所謂 無文土器 또는 厚肉無文土器라고 불리는 土器가 支石墓에서 出土되었다는 報告는 從來까지는 없었으나 昨年에 國博에서 施行한 바 있는 忠北 堤川郡의 南方式支石墓의 發掘調査에서 支石墓의 蓋石直下에서 發見된 箱形石棺(國博에 復原展示中인) 속에서 丹塗磨研土器와 같이 出土된 바가 있고 역시 杞溪面의 다른 部落에 있는 支石墓에서 그 와 똑 같은 土器破片이 多數 發見되었던 바 있기 에 이 土器가 出土된 遺構——住居址로 認定함——가 支石墓를 營爲한 時代의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 이 라는 것을 附記해 둔다.

石造僧形像의 一例

鄭 明 鎬

昨年 十一月初旬頃에 慶州市 路西里 大慈園이라는 孤兒院 院長舍宅

庭園內에 있는 石造僧像 一軀를 調査한 바 있어 이를 紹介하고자 한다. 本來 이 僧形像은 月城郡 川北面 神堂里에 放置되어 있었던 것인 데 院長 趙仁佐氏에 依하여 約十一年前에 現所在地로 옮겨졌다고 한다. 그러나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慶州郡條에 있는 佛像「川北面神堂里 幅四尺 高サ二尺五寸ノ石ニ佛像一體彫刻セリ神堂里部落中ニアリ」라 함은 이 像의 現寸이 幅四尺四寸五分 高二尺三寸七分임으로 이 記錄과 大差 없음을 보아 이 僧形像을 佛像으로 誤認記載한 듯하다. 形態는 長方形花崗石의 中間部에 龕室을 만들고 中央에 結跏趺座한 僧形像을 浮刻하였다. 양 눈은 큼직하고 등골게 떠 있으며 코는 磨滅이 甚하나 높고 컷을 것으로 짐작된다. 若干 微笑를 나타내기 爲하여 입술을 가볍게 내밀었고 口唇兩 頰의 輪廓이 뚜렷하게 表現하여졌다.

두 손은 마주잡고 무릎위에 올려 놓았으며 발은 筋肉이 힘차게 나타났고 袈裟는 通肩으로 마주잡은 손과 발을 가린 옷자락은 앞으로 내려 흐르고 있다. 此外에 龕室外廓에 浮彫한 眼象兩側에는 各各 內向한 교사리 紋이 있다. 上端의 左右는 모를 죽이고 石材나 龕室도 上部兩端은 모를 죽이고 있다. 또한 石

